

광주시, '골목상권 살리기' 나섰다

이용섭,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민생안정책 발표 상생카드 할인 6개월 연장·공공배달앱 조기 활성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比 확대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 19 민생대책으로는 13번째로,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특별주간 후속조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치열한 중반전투를 치르고 있는 지금,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챙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 5가지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광주상생카드 할인혜택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

장하기로 했다. 당초 6월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예산 300억 원은 국비 180억 원과 시비 12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3월 출시된 광주상생카드는 2년만에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골목상권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개인당 월 100만원(선불카드, 체크카드 각 50만원) 이내에서 1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

인과 자영업자에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다.

시는 또 4월 시범운영,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이용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4월 시범운영 기간부터 앱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가맹점)들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2%대로 대폭 낮춰 기존 상업용 배달앱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 소비자들이 광주형 공공배달앱에서 광주상생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혜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도 탑재했다.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범 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 등 중앙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건의해 정책에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실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동구, 광주·전남 최초 '스포츠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광주 동구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관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동구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 30평 규모로 체험관을 조성 중이다. 오는 4월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대형스크린과 동작인식센서, 빔 프로젝터, 체육기구 등을 설치하고 충격흡수 바닥재 등 안전설비를 갖춘 예정이다.

서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광주 서구는 노인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 기관으로서 운영을 도맡는다. 영양사 2명이 상주하면서 서구 관내 경로당·경로식당 등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서구는 경로당, 경로식당 등 노인급식 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한 영양·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비 1억 원을 지원 받았다. 서구는 올해 경로당 39곳, 경로식당 6곳 등 총 45개 급식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

남구 "광주대 학생들 '통일 길라잡이' 된다"

광주 남구는 통일 시대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통일 길라잡이'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광주대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청년 남북 교류학교' 교육을 실시한다.

남구는 17일 "구경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 사업 파트너로 활약 중인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청년 남북 교류학교에 합류해 경제와 문화, 역사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남북 교류학교는 남북 교류 및 화해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대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대 청소년 상담·평생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0여명이 참여한다.

북구, 불법주정차 한시적 단속 유예 등 주차 편의 도모

광주 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완화된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에도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는 단속될 수 있다.

광산구 3기 사장님 아카데미 수강 소상공인 모집

광주 광산구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장님 아카데미' 수강생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올해 사장님 아카데미는 매출과 수익률을 최고로 올리는 전략, 홍보 마케팅, 글쓰기 전략, 매장 관리 등을 8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광산구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네이버 전용 주소(naver.me/F9QEklKn)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산구 기업경제과(062-960-3878·8420-8422)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올해로 3번째 여는 사장님 아카데미는 실천과 다름없는 교육·실습으로 실제 매출을 상승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임형택기자

'5·18주먹밥 세계화 추진'...전문가 구성 브랜드지원단 활동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졌던 주먹밥을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주먹밥 브랜드 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주먹

밥 브랜드화·전국화·세계화 시동을 건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주먹밥은 현재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을 고려해 38종의 레시피가 개발됐다.

또 '팝콘서트'를 비롯해 맘스쿨,

행복한 양림밥상, 다르다김밥, 광주 송정역 등 시내 곳곳에서 광주 주먹밥이 판매되고 있다.

제조가공정을 통해 생산된 냉동 주먹밥, 주먹밥 과자 등 8종은 다음 달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대중화·세계화 사업에 나선다.

제조원·판매점·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 구축해 퓨전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중화를 위한 홍보,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장대응형 주먹밥 상품 개발,

주먹밥 판매점 육성 및 지원, 양산형 광주주먹밥 제조원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18개소인 광주주먹밥 판매점도 3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5·18 행사주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대표음식 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제행사에서 주먹밥 나눔행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원장은 "광주주먹밥이 지역의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식품개발·디자인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광주 주먹밥 브랜드지원단'을 구성했다"며 "상품 개발과 함께 대중화, 전국화, 세계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상정, 소통 부족때문"

"도민께 걱정 끼쳐드려 송구" "동료 의원과 더욱 소통할 것"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17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된 데 대해 "가부를 떠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기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신임 결

의안이 상정돼 의원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 운영의 소통 부족때문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도민들을 행하고 보듬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도민이 의회를 걱정하게 한 점 너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민주주의 전당인 의회에서 열린 토론과 논쟁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장려할 일이다"면서 도

"하지만 이런 감정이 불협화음이 돼 의회가 진통과 갈등으로 이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불평한 감정을 표출했다.

김 의장은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만을 보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도 진심을 담아 존중하고 더욱 소통하는 마음으로 협치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김한중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56명 중 제척 대상인 김 의장을 빼고 5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28명, 반대 27명으로 과반수인 29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2월 8일 총사원동의로 인하여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유환회사 위드자산관리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6동 2502호 (중흥에스클래스)
청산인 공정숙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남본부

한국인본인인증센터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천으로 기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인 이력정보서비스 승인인증센터